



남한산성의 소나무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어린 소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어 걱정이이다.



시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6) 남한산성 장경사

활엽수 도전에 소나무 숲 위기

성안 9개 사찰 중 장경사만 옛모습 온전 들팽, 어치, 노랑턱멧새 등 산새들의 성

踏雪夜中去 不須胡亂行
눈 덮힌 밤길 지날 때는 함부로 걸음을 떼지 말라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언젠가 남한산성 옛 절터에서 발굴되었다는 청허당 서산 대사 시비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이다. 시대를 넘나드는 좌우명이다.

남한산(南漢山)은 안성 칠장산에서 금북정맥과 갈라져 복잡한 한남정맥이 한강을 저만큼 내려다보며 솟아오른 산이다. 이 산의 마루금을 이는 남한산성은 인조 때인 1624년, 후금(청나라)의 침입에 대응하고자 옛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다. 벽암(碧岩) 대사가 이회(李梅)장군과 함께 승군들을 동원해 2년 만에 축성했다.

성 안에는 축성 전에 있었던 망월사와 육정사 2개의 사찰과 축성과 함께 장건된 7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 가운데 장경사만 옛 터에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는 자리를 옮겨지었거나 아직도 주춧돌만 남아있다. 이번에 국청사, 육정사지, 망월사, 장경사, 개원사 주변을 돌아보았다.

종로 네거리에서 침괘정 옆을 지나면 새로 복원된 행궁이 자리하고 있다. 행궁 위쪽으로는 우람한 장송(長松)들이 넓게 포진하고 있다.

남한산의 상징인 소나무 숲은 수령이 70~90년 생에 이르는 노장목으로, 모두가 일제강점기로 나리 잃은 후에 태어난 나무들이다. 주인이 쫓겨난 땅에서도 저리 굳건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산성마루 사람들의 정성 덕분이다. 당시 마을 주민 303명이 발채를 금지하는 금림조합을 만들어 숲을 정성들이 보호했다. 행궁터 옆에 갑술년(1934)에 세운 '금림조합발명비(禁林組舍不忘碑)'가 서 있다.

남한산의 소나무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소나무 품종 가운데 중남부고지형에 속한다. 이

형질의 소나무는 평안남도에서 전라남도에 걸친 내륙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줄기에 붉은 기운이 돌며, 가지가 마치 우산처럼 위에서 무성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남한산 소나무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어린 소나무들이 송송 자라주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생태적 천이(遷移)에 따라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들의 도전이 거세다. 이 소나무 숲을 지켜내려면 하는 수 없이 인간의 간섭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당국이 소나무들을 위협하는 활엽수 경합목들을 제거해주고 있다. 그리고 어린 숲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인상의 채광을 위해 일부 소나무의 무성한 가지들도 함께 쳐주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만을 위한 관리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소나무 아래 관목과 야교목들을 모

나. 낙엽과 비슷한 바탕색깔에 어두운 흑갈색 얼룩무늬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위에 기척이 나면 나뭇가지를 뺏아 삼아 올라가서 꼼짝하지 않는다. 숲바닥을 걸어 다니며 낙엽더미를 헤쳐서 그 안에 숨은 벌레나 열매들을 먹는 것도 달을 달았고, 번식기에는 암컷이 병아리들을 여기저기 불고 다니는 습성도 달과 흡사하다.

장경사 주변의 식생은 원래 있던 소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신갈나무와 굴참나무가 자연스레 들어섰고, 지금은 서어나무와 톨푸레나무를 중심으로 극성립을 이루어가고 있다. 남한산 전체로 보면,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서어나무군집, 톨푸레나무군집 등의 면적비율은 47.13%로 소나무 군집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장경사를 비롯하여 망월사와 현철사 일대의 숲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한산성에서는 장경사 앞의 자리가 가장 양명하다. 시원히 열린 시야 저만큼 성곽이 지나가고, 덩굴식물인 사위질팽이 성곽에 올라가 있다. 줄기와 잎은 이미 시들고 씨앗만 여기저기 영겨 있다. 꽃이 시든 자리에 맺힌 하얀 씨앗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바람에 불면 부드러운 솜털이 씨앗을 멀리 옮겨준다.

장경사에서 망월사 가는 길은 지반이 약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비탈에 톨푸레나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톨푸레나무는 이름 그대로 비교적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한때 산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많이 심었다. 장경사와 망월사 주변에서 관측되는 톨푸레나무도 모두 인공 식재된 것들이다. 가지가 떨어진 자리가 마치 사람의 눈 모양 같아서 재미있다.

망월사(望月寺)는 축성 전부터 있었지만, 오래전에 소실되고 지금의 망월사는 옛 터에 다시 지은 절이다. 다만, 근대군데 옛 축대가 남아있어서 옛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주변식생은 장경사와 마찬가지로 신갈나무 등을 중심으로 한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다.

망월사를 내려오면 동문 밖으로 산성천이 흐르고 있다. 한때는 산성마을과 식당촌에서 쏟아내는 생활하수로 크게 오염되었으나, 근래 위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계곡 생태계를 되살려 놓았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장경사와 망월사 주변으로까지 날아다닌다.

개원사(開元寺)는 도총섭이 머무르며 승군을 지휘하던 남한지엄(南韓地嚴)의 본부였다. 동문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다. 옛 절은 30년 전 화재로 없어지고, 지금은 그 터에 새 절이 들어서 있다.

개원사에서 남장대 옛 터에 이르는 지역은 신갈나무 등 활엽수가 우점하는 혼효림지대이다. 원래는 이 지역도 소나무가 울창했으나, 30년 전 숲살림공사의 대공습을 받아 소나무 숲이 일시에 망가져버렸다. 지금은 겨우 노송 몇 그루만 살아 남아있다. 개원사-남장대지역의 가을 단풍이 다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개원사의 본전인 대각전(大覺殿)은 시멘트벽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닥도 온통 시멘트로 미장판을 만들었다. 시멘트가 아무리 싸고 편리하다해도 이젠 분명 바람직한 전통불사가 아니다.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글·사진=김재일(시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 (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중 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 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